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세상만사 내 스승 아닌 것 하나도 없어

### 물흐르고 꽃피는 것등 세상사 보고 배워 지혜 넓어지듯 조계종 사건도 발전계기 돼야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습으로는 항상 한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어가신다면 나도 또한 항상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도 역시 만물이 일물이고 일불이 만불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그 불성 자체 그 주인공의 한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모든 일체만물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배우고 지혜가 넓어지고 물리가 터지고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요소 중에 잘못 나가거나 잘 나가거나 이게 문제죠. 참다듬게 물리가 터져서 잘 나갈 수 있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나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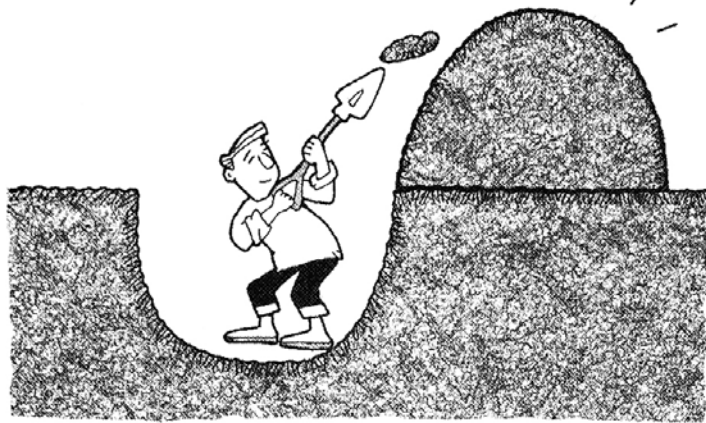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기뿌리 믿지 않아 울고불고 하는 일 많아 내가 없는데 뭐가 있으랴 하면 업보도 없어

이 도로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르치죠. 이 몸은 시지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직여주어 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거기다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왜 졸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지은 습관과 업장이 너무 짙고 많아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나 온 자리에다 되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모든 걸 관하고 놓으면 그것은 반드시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루어지는 건데 소멸이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신이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한 생으로 깨우침을 빨리 해서 다 소멸시키자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다 자주 놓아서 소멸이 되니까 이익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죠. 그 업식과 업보와 업력이 자꾸자꾸 소멸되니까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아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법이 요만큼도 에누리 없는 것은 양심이지. 자기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일체 만물의 부처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죠. 그것처럼 이 진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항상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에 씨앗을 심어서 먹고 그 이듬해에 또 씨앗을 심어서 먹듯이, 그것은 끊임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집도 있고 산도 저렇게 있지만 사람은 길을 걷고 또 걸어도 그래도 그 집은 남아있고 그 산은 남아있듯이 우리는 그런 한 할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고 어떤 상대가 없다면 무런 발전을 못합니다. 차를 아무리 새로 사 놓아도 그것을 운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은 부딪침에 의해서 커지고 발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스님네들도 참 허망하다. 욕심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발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두를 보고서 우리가 공부하니 그 분들도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장마가 드는 걸 봐도 스승이요, 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돌이 있는 걸 봐도 스승이요, 꽃이 피는 걸 봐도 스승이요, 스승 아닌 것이

우리는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범신이고 그대로 보현신이고 그대로 부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범신이고 몸을 움직여주었다 하면은 보현신이지. 보현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모든 걸 감싸고 움직여주는 게 보현신이에요.

알고 보면 아주 요만큼도 에누리 없는 자기의 마음이지. ‘야호’ 하면 그 자기가 ‘야호’ 한 것이 다시 튀어와서 자기한테 들리듯이, 내가 마음을 냈을 때 남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상대도 다 퍼져서 알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갖다주니까 받지 않더라니까, 아무도 없는데 받으시지 그러느냐

고 하니깐,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점프해서 넘어가도 됩니다. 이 ‘수상행식’이라는 것에도 침부하면 다 뛰어넘는 거죠. 원심으로 만들라고 하는 데 지금 쉽게 말하자면 공식이죠. 한데 합쳐진 한마음을, 의식을 말하는 거죠. 수상행식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저지를 줄 알기 때문에, 또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슬픈 걸 알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아예 그냥 잠이 먹고 먹고하고 이러는 거나 알고 그러지 어떻게 그거를 알겠습니까. 사람은 고통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수 억겁을 거쳐오면서 그 아픔을 겪어온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그렇게 거쳐왔기 때문에 감수성도 빠르고 상상력도 빠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감수

성과 상상력이 그대로 체가 없는 우리 마음의 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질하는 감수성 말고요. 도둑질하는 상상력 말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뛰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서 저것을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서 좀 잘되게 할 수 있나 이런 것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거든요. 전체가 부처님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의 마음도 전부 그렇습니다.

도에 따라서 물에 가면 주해신 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돌에 가면 자신이 되고, 또 아픈데 가면 약사신이 되고, 또 명이나 하면 칠성 부처로 화하고, 또 좋은 데로 못간다 하면 지장으로 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돌아가거든요. 남들과 같이 손있고 귀있고 눈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어서 마음대로 상상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리는 못 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천리를 마다 안하고 만리를 마다 안하고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성 무의 축지법이지.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기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다가 열계성이 걸려서 죽은 걸 봐도 관하죠. 그런데 지금 다 아는 사람들은 관하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대로 보는 순간이죠.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다 관하고 그것을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 영가는 바로 화해요. 좋은 마음으로 화해서 천도가 되고 아픈 사람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모습으로 되는 줄이 많지,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들어오는 줄은 아주 드문 얘깁니다.

내가 주는 것이 많지, 받는 것은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슨 뜻이나 하면 나한테로 들어오는 것은 보살이 거의 다 된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몰라서 이리로 몰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러고 같이 해주죠. 그래서 화해서 차원에 따라서 진화되게 하고 말이에요. 참 이 얘기는요,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뛰파게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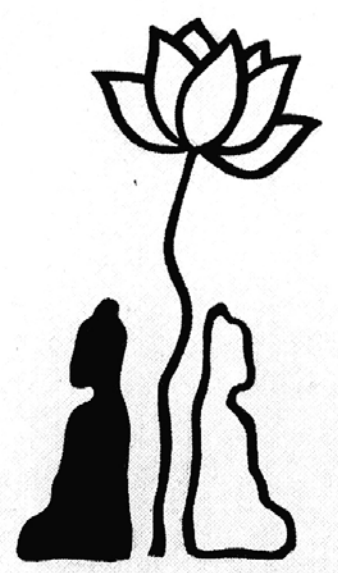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행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9

## 마음이 앞장서면 어떤 보화라도 뒤따른다.

모든 존재는 마음의 차원대로 그 수준에서 각각 살아가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같은 중생간에도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의 뜻을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보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 자기가 지은 행위로부터는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마침내 깨달을 때에 가서야 해탈이 되는 이 마음의 진화만이 가장 소중한 단 한 가지 일이다.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거꾸로 마음을 타락시키느라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으로 사람이 지옥고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로 승천하기도 한다. 마음 한번 잘못 쓰면 데서 바로 구렁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렁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씀씀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천상의 복, 지옥의 죄가 다 한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마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잘나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잘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잘나려고 하는 마음까지 내려놓고 폭 쉬어 보라. 참된 행복이란 잘난 기쁨 그 이상의 것이다. 양면을 조율한 중도의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천만 가지의 층위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층위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곧 관념이다. 자기의 생각 여하에 따라 마음의 차원이 달라지므로 한생각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부처님 법에서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둘이 아니다. 사바가 즉 정토요 번뇌가 즉 보리인 것이다. 내 마음이 정정하면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인 것이며 번뇌와 보리를 둘로 보지 않고 그 실상을 적시하고 나면 본래로 번뇌가 없는 영원한 실상에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마음이다. 욕심이 죽어도 죽어질 수 없

은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다. 또 사람이 산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산신이 있는 것이고 신장이 있다. 용신이 있다고 하면 신장과 용신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귀신 것을 하면 귀신이 있고 귀신 것을 안 하면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안주게 되는 것이다.

마음 도리를 알면 모든 게 화평하게 돌아간다. 신체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니 그렇고, 가정적으로는 주인공의 발현으로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니 그렇고,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으로는 질서와 조화속에 앉은 방식을 지키는 이치가 밝게 이끌어지니 그렇다.

부처는 어디 있으며 보살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 요술 주머니 속에서 오색 보물을 꺼내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보살로도 나와서 자기를 천견하고, 부처로도 나와서 천견한다. 또 신장으로 나와 천견하기도 하고 마구니로 나와 천견하기도 한다.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나 꿈에 보는 모습이나, 또는 부처님의 모습이 나 관세음 보살의 모습, 기도 중에 나타나 보이는 보살의 모습 등이 모두 자기가 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니 바로 자기가 생각 내는 그 마

마음은 중생계인 이 욕심, 즉 수없이 많은 생명과 오대양 육대주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형성하고 주재하는 주인이다. 모든 중생들을 이끌고 가는 신장이다. 따라서 신장이 마음쓰는 대로 오장 육부의 중생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다. 신장이 ‘죽겠다’고 하면 몸 속의 생명체들도 ‘죽겠다’고 응하게 된다.

마음이 항상 불이라야 한다. 불이라야 저 산천 조물이 생동력 있게 푸르르듯 마음이 항상 청초처럼 푸르르면서 지혜로워, 강물이 도도히 흐르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다.

협찬: 주인공